



# 지금 내 마음은요

◆ 마음을 표현하는 낱말을 알아보고 마음을 표현해 봅시다.



마음이 드러나는 표정을 알맞게 그려 봅시다.



화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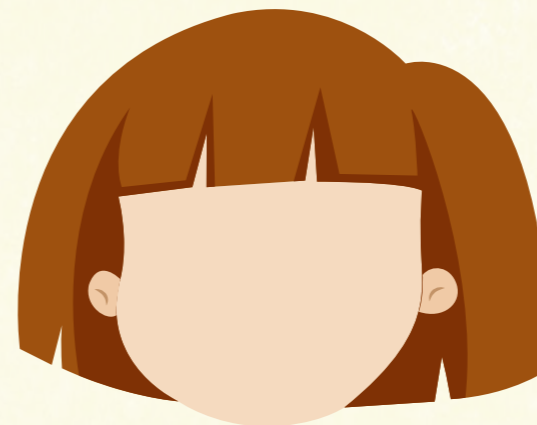
놀람



기쁨



무서움



슬픔

## 내 마음은 보물 상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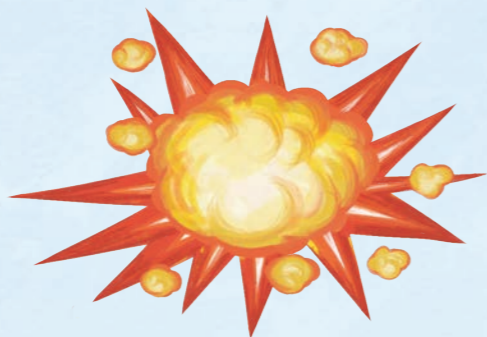
오늘 나는 마음속에 숨어 있는 것을 꺼내려고  
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. 정말 많은 것들이 있네요!  
기쁨, 눈물, 떨림……. 노래를 흥얼거리게 하는 것도 있어요.  
내 마음은 꼭 보물 상자 같아요.



마음속에 용기가 생기면  
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 
어떤 모험도, 어떤 도전도 두렵지 않지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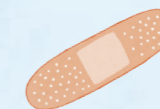
화가 나면 마음속에  
활활 불이 나는 것 같아요.  
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요.  
마음이 뜨겁고, 답답하고…….  
터질 것 같아요!



하늘에서 눈이 내려요.  
작고 하얀 눈송이들이 나무 위에  
살포시 내려앉는 걸 보니,  
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져요.  
나도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요.



친구랑 말다툼을 했어요.  
친구가 한 말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.  
친구와 화해하면 상처받은 내 마음과  
우리의 우정이 치료될 수 있을까요?



오늘 기분이 별로예요.  
마음이 무겁고 슬퍼요. 계속 한숨이 나와요.  
마음속에 차가운 얼음이 가득 찬 것 같아요.



무서워요.  
어둠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.  
귀신일까요? 아니면 늑대?  
용기를 내서 불을 켜야 해요.  
휴, 우리 집 고양이가 까망이었네요.



엄마와 아빠에게 깜짝 선물을 받았어요.  
 마음이 기쁨으로 환해졌어요.  
 가슴이 두근거리고 벅차요.  
 훠훠 날아오를 것 같아요.  
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?



내 마음은 나무 위 오두막집 같아요.  
 문을 열어 놓으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들어오지요.  
 내 마음은 신비로운 비밀의 정원이에요.  
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?



1 「내 마음은 보물 상자」를 읽고 어울리는 마음을 **보기** 에서 골라 써 봅시다.

**보기** 무섭다 기쁘다 화나다

1 마음속에 활활 불이 나는 것 같고  
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다.

--	--	--

2 어둠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고 귀신이  
나타날 것 같다.

--	--	--

3 깜짝 선물을 받아 가슴이 두근거리고  
훠훠 날아오를 것 같다.

--	--	--

2 '여러 가지 마음이 있다'는 뜻으로, 밑줄 친 말과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을 글에서 찾아 써 봅시다.

내 마음은 보물 상자

내 마음은

내 마음은

3 그림을 보고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 봅시다.

보기 감탄해요 수줍어요 궁금해요



1 처음 만난 어른께 인사해야 할 때

--	--	--	--



2 반짝반짝 크리스마스트리를 봤을 때

--	--	--	--



3 개미들이 줄지어 어딘가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

--	--	--	--

4 내 마음을 까닭과 함께 써 보고, 그럴 때 하게 되는 행동도 생각해 봅시다.

보기 나는 친구가 장난감을 빼어서 화가 났습니다.

까닭

마음

그래서 발을 쿵쿵 굴렀습니다.

행동

● 나는 친구가 나와 놀지 않아서 .....

까닭

마음

그래서 훌쩍훌쩍 울었습니다.

행동

● 나는 .....

까닭

마음

그래서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.

행동



배움 다지기

● 마음을 표현하는 낱말을 알게 되었나요?



● 까닭과 함께 알맞은 낱말로 마음을 표현하였나요?

